

최서해의 개작과 검열*

유 임 하**

요약

이 글은 최서해 소설을 사례로 삼아 개작과 검열 문제를 논의했다. 그의 소설 개작은 1920년대 소설의 신체성을 확보하는 사례로서 계몽적 논설을 벗어나 '체험의 기록서사'에서 '민족 재현의 리얼리티'를 담은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며 근대소설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그의 개작이 근대소설 양식을 확보하는 한편, 계급적 각성에 따른 정치성을 획득함으로써 일제의 검열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가 생전에 간행한 작품집 두 권에 주목하여 작품선별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수록작 선별 기준이 작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고려하는 것이면서도 출판 검열을 의식하는 일면을 짚어보았다. 또한 최서해의 검열관과 검열로 피해입은 사례를 논의하면서 게재 금지된 작품을 개제하여 다른 잡지에 수록한 사례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그의 소설에서 뚜렷한 근대의 국가장치에 대한 서술 결여가 자기검열과도 관련 있다는 점과 함께, 검열기제의 경로에서 정치성을 보존하기 위한 '작품 생존술'이자 '자기검열의 글쓰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최서해 소설, 개작, 신경향, 정치성, 검열, 자기검열, 환상, 근대의 국가장치, 공간, 문화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논문의 완성도 제고에 유익한 제언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부

목차

1. 문제 제기, 검열과 문화사의 관점에서 최서해 다시 읽기
2. 개작의 윤곽과 지향
3. 작품집 수록작의 선별 기준과 검열의 연관
4. 최서해의 검열관념과 검열 피해상
5. 검열과 주름, 저항적 글쓰기: 「저류」와 은폐된 정치성
6. 마무리, 최서해 문학연구와 문화사적 지평

1. 문제 제기, 검열과 문화사의 관점에서 최서해 다시 읽기

근대의 제국주의가 구축한 검열체제는 피식민국가와 민족, 사회를 통제하고 관할하는 헤게모니의 관철을 넘어 주체의 호명까지도 가능한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다.¹⁾ 근대 이후 검열체제의 최종 지향은 국가시스템이 호명하는 주체의 창출에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제의 검열체제는 식민지적 주체의 의도를 검열하는 수준을 넘어, 제국의 호명에 응답하는 주체, 스스로를 검열하는 개인 주체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일제 강점기 내내, 총력전 체제로 진입하기 전까지 신문과 잡지에서는 ‘생존과 순치를 교환하며’ 검열체제로의 순응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글쓰기가 엄연히 존재했다.²⁾

검열의 완강한 장벽은 검열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자의성과 그에

1) 3.1운동 후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고 경무 총감부가 경무국으로 개편되면서 1919년 8월부터 1926년 4월 도서과 출범에 이르는 경과는 일제 검열기구의 가시화를 기술한 경우로는 정근식,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25면 이하.

2) 일제의 검열체제는 제도적 자의성과 불투명성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었는데, 구한말 제정된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에 근거해 있었다. 검열후 허가를 얻은 후 출판이 가능하도록 통제 관리해온 일제는, 검열지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검열처분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잡지 편집자나 출판업자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비추었고 이윽고 검열에 맞서는 사태를 야기했다.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419면.

따른 검열 기제의 불투명성에서 연유한다. 이 때문에 작가들은 검열이 작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체감하며 검열장치를 돌파할 기술적 요소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식민권력의 가시적인 위협과는 별개로, 검열을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무력화할 저항의 글쓰기를 탄생시킨다. 텍스트의 문면에는 정형화되고 의례적인 표상들이 고착되고 반복되지만,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는 검열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서술전략과 장치를 고안하고 이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권력 차이가 크며 클수록, 그리고 권력이 보다 자의적으로 행사될수록 피지배집단의 공식 대본은 정형화되고 의례화된 모습을 띠는 경향”과 함께 “권력이 위협적일수록 가면이 더욱 두꺼워³⁾진다. 반면 자기검열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는 자유로만 작동한 것”만은 아니다. “실질적인 검열의 위협 앞에서 내린 결정”이 자기검열의 현실적 판단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왕, 국가, 종교 등이 억압과 입막음을 강제했을 때⁴⁾ 출현한다. 검열에 저항하는 글쓰기의 차원과 자기검열⁵⁾ 사이에 놓인 글쓰기의 길항이야말로 이야기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하며 검열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려는 상호작용의 관계망을 형성해온 셈이다. 이 국면이야말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껏 온존해온 문학 및 사상 검열의 조건을 가시화할 통로이자 한국근대문학사를 새로이 해석해줄 미답의 지평이다. 검열과 자기검열이라는 상충되는 기제작동과 심리적 현실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 초기인 192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면모를 다시 읽어볼 여지를 마련해준다.

3)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대본』, 후마니타스, 2020, 29면.

4) 에마누엘 피에라, 권지현 역, 『검열에 관한 검은 책』, 알마, 2012, 88면.

5) 이 글에서는 검열에 맞서는 저항적 글쓰기와는 달리, 자기검열의 의미를 ‘검열의 강고함에서 비롯된 정신적 위축과 회피심리’ 외에도 서술의 불온성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서술의 선명성을 배제하고 그 대신 암시와 생략, 내용 분할, 맥락의 변경 같은 서술의 불투명성을 무기로 한 ‘가면’과 ‘포장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의 생존을 도모하는 글쓰기의 전략과 기제를 통칭하기로 한다.

검열 문제와 관련해서 서해 최학송(1901-1932)은 여러 면에서 표본이 되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검열에 저항하는 글쓰기, 자기검열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서해는 근대 초기 작가들처럼 잡지편집자, 신문기자를 겸한 언론인 작가였다.⁶⁾ 그는 『조선문단』 『현대평론』 등의 잡지를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중외일보』 정치부장, 『매일신보』 학예부장으로 재임하며 창작을 병행했다. 그의 문학적 사회적 활동은 일제 검열체제와 길항했고 소설 창작 또한 검열장과 무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1924년 처녀작 「토혈」(『동아일보』, 1924.1.23-2.4)과 추천 데뷔작인 「고국」(『조선문단』 1호, 1924.10)부터 장편 『호외시대』(『매일신보』, 1930.9.20.-1931.8.1.)에 이르기까지, 대략 8년 동안 동화, 번안, 번역소설을 제외하고 6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는데, 「살려는 사람들」(『조선문단』 7호, 1924.4)처럼 게재 금지 처분으로 서문만 있거나 원고를 압수 당한 사례는 8편에 이른다.⁷⁾ 검열 피해는 1924년(1), 1926년(2), 1927년(3), 1928년(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활발한 작품활동 시기와 겹친다.

최서해 문학은 전집 발간으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광근의 작업으로 분기점을 이룬다.⁸⁾ 최근 최서해 연구의 경향은 문화사적 접근이 두드러

6) 박용규, 「식민지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29집, 동국대 한국문학 연구소, 2005.

7) 「살려는 사람들」(『조선문단』 7호, 1924.4, 게재금지), 「그 찰나」(『시대일보』, 1926.1, 미완, 게재금지), 「농촌야화」(『동광』 4호, 1926.8, 게재금지), 「가난한 아내」(『조선지광』 64호, 1927, 미완), 「이중」(『현대평론』 4호, 1927.5, 게재금지), 「박노인 이야기」(『신민』, 1927.5, 압수), 「폭풍 우시대」(『동아일보』, 1928.4.4-12, 미완, 게재금지), 「용신난」(『신민』 40호, 1928.8, 미완, 게재 중지) 등 모두 8편에 이른다. 검열과의 연관이 불분명한 미완작은 「가난한 아내」를 제외하고, 게재금지(게재중지 포함)된 작품이 6편, 압수 1편 등으로 검열의 피해를 입었다.

8) 광근, 「최서해연구사의 고찰」, 『반교어문연구』 22집, 반교어문학회, 2007. 연구사 개관에서 광근은 최서해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홍이섭의 역사학적 논증을 거쳐 1970년대 이후라고 본다. 그는 이해성과 김기현의 실증연구가 초석을 다졌으며, 전집 상하권 간행과 1994년 『호외시대』 간행 이후 최서해 연구가 활성화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면서 심화된 성과의 하나로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국학자료원, 2002)을 거론하고 있다. 광근의

진다. 그 중에서도 대중문화의 관점을 제안한 천정환의 논의,⁹⁾ 이를 바탕으로 비문해자 출신 작가의 문화적 배경을 살핀 유승환과¹⁰⁾ 대중지성의 담론장인 연설회, 좌담회 등의 신체성에 주목한 신지영이 주목된다.¹¹⁾ 이 문화사적 관점은 1920년대 문단과 미디어장치의 맥락 속에 근대소설의 신체성과 미디어의 연관을 해명해온 이경돈·박현수·최수일 등과 함께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¹²⁾ 최서해 소설에서 ‘가난’ 모티프에 주목한 안용희,¹³⁾ 프로문학에 대한 해명에 감정론을 도입한 손유경,¹⁴⁾ 분노의 이성/감성, 집단/개인의 위계를 해체, 재구성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한수영¹⁵⁾ 등이 거론될 만하다.

최서해 문학을 검열과 관련시켜 논의한 김경수와 배정상 등도 주목되는 성과다. 김경수는 1927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朝鮮の言論と世相調査資料 第21輯』의 검열기록에서 윤기정의 「빙고」, 최서해의 「이중」(『현대평론

진집 간행과 함께, 최서해 문학을 실피는 입문서 구실을 하는 경우는 1920년대 신경향파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안목과 정확한 작품 독해를 보여준 박상준의 『한국근대문학과 신경향파』(소명출판, 2000)이 대표적이다.

- 9)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153-329면.
- 10) 유승환은 최서해의 소설을 통해 비문해자 출신의 작가의 출현 배경을 회령 일대의 청년회화동과 노조경력 등에 주목하는 한편 비제도권의 근대지 습득 경로를 세밀하게 재구해낸 문화사적 접근방식을 보여준 바 있다.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빈민 작가 탄생의 문화사적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 11) 신지영, 「한국 근대의 연설·좌담회 연구-신체적 담론공간의 형성과 변화」, 연세대 박사논문, 2009; 신지영, 부/재의 시대-근대계몽기 및 식민지 시기 조선의 연설·좌담회』, 소명출판, 2012.
- 12)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이경돈, 「『조선문단』에 대한 재인식」, 『상허학보』 7집, 상허학회, 2001; 박현수, 「최서해 소설의 승인과정과 에크리튀르」,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 최수일, 「『개벽』 소제 「기록서사」의 양식적 기원과 분화」, 『반교어문연구』 14집, 2002.
- 13) 안용희, 「그늘에 피는 꽃, 최서해 소설의 아포리아」,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 14) 손유경, 『고통과 동정-한국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08.
- 15) 한수영, 「분노의 공과 사-최서해 소설의 ‘분노’의 기원과 공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 1927.5)과 「박노인 이야기」(『신민』, 1927.5) 등을 발굴한 바 있다.¹⁶⁾ 배정상은 연재장편 『호외시대』를 매체(친일신문인 『매일신보』)와 공간(식민지조선), 소재와 양식(야학을 소재로 한 대중서사)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한편, 그가 발표한 대표작 대부분이 『조선문단』·『신민』·『동광』 등의 잡지나, 『시대일보』(후신은 『중외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 등 주로 민족 계열 미디어에 수록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⁷⁾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와 함께, 이 글에서는 검열 관련 연구(정근식, 최경희, 한기형, 한만수, 박헌호, 이혜령, 박광현, 문한별),¹⁸⁾ 언론사의 논의(정진석, 박용규, 이민주) 등을 참조해 보고자 한다¹⁹⁾. 그 중에서도 검열 기구와 검열관의 특성을 살핀 정근식, 최경희, 한기형, 한만수, 박광현, 문한별 등의 논의가 참조된다. 이들의 연구는 일제 검열체제의 역사적 사회문화사적 실증, 검열제도와 인적 구성, 검열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와 원전 연구의 텍스트성에 대한 가시성과 불가시성에 대한 복합적 독해를 요

16) 김경수, 「일제의 문학작품 검열의 실제-1920년대 압수소설 세편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3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배정상, 「『호외시대』 재론-『매일신보』 신문연재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71-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17) 배정상은 『호외시대』가 비상한 시국에 대한 인식에서 대중서사의 외양 안에 저항적 글쓰기의 측면을 내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총독부 기관지라는 『매일신보』의 매체 특성을 감안하면서 대중성을 전제로 삼았으나 검열체제를 의식하면서도 계급적 대중적 인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야학활동'에서 찾고 있다. 반면, 윤대석은 『호외시대』를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대 조감에서 풍속을 담아내는 데 그친 작품을 본다. 윤대석, 「시대정신과 풍속개량의 대립과 타협-『호외시대』」, 『문학사와비평』9, 2002, 155-176면

18)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동국대출판부, 2010; 한만수, 『허용된 불온』, 소명출판, 2015; 정근석 외 공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문한별, 『검열, 실증된 작품과 문학사의 복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출판부, 2019 등.

19)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1,2)』, LG상남언론재단, 1998; 정진석, 『극비 조선 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개정판; 정진석, 『언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박용규, 「식민지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2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이민주, 『제국과 검열-일제하 언론통제와 제국적 검열통제』, 소명출판, 2020 등.

구하는데, 그 참조점으로는 정치경제적 차원과 함께 법률과 제도, 일체의 근대국가 장치, 신문잡지의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실을 고려하여 작품의 문화사적 함의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식민지 법역에 조응되는 이중시장의 성격을 ‘식민지 문역’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를 제안한 한기형,²⁰⁾ 복자처리된 작품의 복원, 검열 우회를 위한 서술기법을 거론한 한만수, 검열장치가 배제시킨 작품의 발굴과 복원을 시도한 김경수 등이 그러하다. 이들 선행연구는 근대의 출발에서부터 일제의 식민체제를 경험한 한국 근대문학의 복잡다단한 실체와 일본 내지와 한반도 사이에 조성된 중간지대(재조일본인사회와 재일조선인사회)를 아우르는 연구영역의 수준 제고와 확장된 논의를 촉발시켰다. 검열에 저항하거나 검열을 내면화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글쓰기의 사례에 주목하며 식민지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되묻는 질문은 자연스럽고 또한 필연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 이 글은 최서해 소설을 사례로 삼아 개작과 검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작’과 ‘검열(자기검열)’ 문제는 문학의 제도사, 사회문화사에서 따로 다루어도 족할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논의의 범주가 넓다. 그런 까닭에 이 글에서는 ‘개작’과 ‘검열(또는 자기검열)’을 중심으로 근대소설의 행로와 검열과 자기검열의 글쓰기 양상에 한정시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최서해의 개작 양상에 주목하여 문화정치의 자장 안에서 개작에 담긴 글쓰기의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글은 작가의 자기검열 기제를 『혈흔』(1926)과 『홍염』(1931) 두 작품집의 선별기준을 해명하는 한편, 압수본의 사례를 통해 검열에 대응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검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소설세계 전반에 남아 있는 검열과 자기검열의 흔적을 짚어보고자 한다.

20)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출판부, 2019.

2. 개작의 윤곽과 지향

최서해가 등단한 『조선문단』은 동인지 시대의 막을 내리고 신문학사상 첫번째로 등장한 대중문예지였다.²¹⁾ 대중문예지를 표방한 『조선문단』의 동인들에게 최서해는 창간 취지에 걸맞는 신진작가의 한 사람이었다.²²⁾ 그는 체험과 감상을 근대소설의 양식으로 변전시키며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다. ‘감상’ 「탈출기」가 ‘소설’ 「탈출기」로 개작했듯이, 「토혈」을 「기아와 살육」으로 개작하며 신예작가의 입지를 다져 나갔다.

이경돈은 이 일련의 개작을 ‘체험수기에서 기록서사로 이행하는 과정’이자 ‘근대소설의 육체’를 구비하는 과정이라 표현했다.²³⁾ ‘기록의 소설화’를 위한 최서해의 개작과정에서 그 내적 동력만큼이나 외적 견인력을 부여한 동기는 『조선문단』이라는 순문예지의 공론장을 주도한 유학생출신 동인들이었다. 『조선문단』의 동인들 중 이광수가 내건 ‘추천소설’ ‘입선소설’의 기준 하나는 ‘민족 재현의 리얼리티’였다.²⁴⁾ 최서해는 『학지광』 『청춘』 시절부터 이광수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사숙했으며, 『조선문단』 합평

21) 이경돈은 동인지 시대와 완전히 다른 『조선문단』의 특징으로 ‘문학의 폐쇄성과 자족성을 벗어나 문학의 대중적 정체성’을 시도한 점, ‘대중문예잡지라는 선언’과 ‘흥미중심적 편집’ ‘신진작가 등용’ 등을 꼽았다. 이경돈, 「『조선문단』에 대한 재인식」, 『상허학보』 7집, 상허학회, 2001, 64-68면.

22) 조은애는 유학생 출신이 주축이 되어 순문예지를 표방한 『조선문단』에서 이광수의 언어판과 글쓰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광수의 유학시절 일기와 「혈서」를 통해 조선문학 건설과 조선의 참된 예술을 지향하며 문학어로서의 조선어 정립과 조선어문학, 세계문학의 지방문학으로서의 ‘국민문학’의 성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은애, 「이광수의 언어공동체 인식과 『조선문단』의 에크리튀르」, 『비평문학』 34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308면.

23) 이경돈은 1920년대 중반 리얼리티를 기조로 한 소설의 육체성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최서해는 감상문의 개작과, 경험기록의 산물을 소설의 육체 성립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경돈의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124-138면(119-140) 및 이경돈, 「1920년대 기록서사와 근대소설」, 『상허학보』 8집, 2002, 134-138면 참조.

24) 조은애, 같은 논문, 309면.

회를 통해 신참작가에서 잡지 편집자, 유망작가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²⁵⁾ 그는 개작을 통해 작가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최서해의 개작은 '감상(문)²⁶⁾이라는 체험기록을 재맥락화하여 근대소설의 양식을 충족시켜 나가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토혈」 개작과 「탈출기」의 '감상(문)'에서 근대소설로 개작되는 과정과 소설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언급했다.²⁷⁾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최서해의 「토혈」 개작 양상을 다시 살펴보면, 서사구도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작품분량, 서술전략과 효과는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된다. 개작의 행방은 표면적으로는 시점과 배경과 인물 변경이 주를 이루지만, 개작내용을 살펴보면 이경돈의 지적대로 1인칭 세계인식이 가진 여러 강점들이 약화되고²⁸⁾ 대화회적 전언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토혈」은 분량상 38자×250행, 9500자 내외로 200자 원고지 기준 약 48매, 「기아와 살육」은 38자×354행, 13,450자 내외로 200자 원고지 기준 67여 매에 해당한다. 「기아와 살육」에서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대략 30매의 분량이 늘어났으나 축약과 내용의 대체가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25) 『조선문단』과 『삼천리』의 합평회를 정리해놓은 신지영의 작업을 참고할 만하다. 신지영, 앞의 책, 489-496면 부록 참조. 신지영이 '사건일지'로 정리해놓은 춘과 박달성의 글 「다사한 게 해 경성 일월을 들어(시골 계신 M형에게 부치노라 1월22일)」, 『개벽』(1923.1)의 내용은, 신문과 잡지사 편집부의 궁상과 건강을 잃어가는 K군을 다룬 최서해의 소설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신소설』 1호, 1929.9)과 상당부분 겹친다. 신문 잡지의 경영자들의 방만한 일상과 월급도 제대로 못받는 사원들의 울분과 탄식이 연상되기에 충분하다. 신지영, 같은 책, 135-137면, 138-218면.

26) 『조선문단』 창간호, 52면. 최서해의 '감상' 「여정에서」, 「탈출기」 등 두편이 '선외(選外) 가작'으로 기재돼 있다.

27) 김기현, 「최서해의 처녀작-단편 「토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1호, 국어국문학회, 1973. 이경돈은 「토혈」(『동아일보』, 1924.1.28, 2.4)의 표제를 '소설'로 소개했으나 최서해가 개작하여 「기아와 살육」으로 발표한 점을 두고 편집자가 임의로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이경돈, 같은 논문, 134면). 그 시기의 이광수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28)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134면.

분량상으로만 개작의 범위를 예단하기 곤란하다.

표1)에서 보듯, 「토월」 서두의 회상 장면은 「기아와 살육」에서 대부분 삭제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인물의 행동과 내면의 세부묘사로 대체되면서 서술 자체가 의미를 달리하는 내용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표1〉 개작과 서술상 변화1-삭제된 회상 대목과 추가된 세부묘사

	토월(『전집 상』, 111면)	「기아와 살육」, 『조선문단』, 27면
서술 양상의 비교(회상 대목의 삭제, 빨간을 마련하고 산을 내려오는 경수의 세부묘사, 심리적 현실이 추가됨)	<p>이월의 북국에는 아직 봄빛이 오지 않았다. 오늘도 눈이 오려는지 회색 구름은 온 하늘에 그득하였다. 위질령을 스쳐오는 바람은 몹시 차다./ 벌써 날이 기울었다.(밑줄은 삭제된 공간 시간 배경 묘사 부분) 나는 가까스로 가지고 온 나뭇짐을 진 채로 마루 앞에 펼쳐 주저앉았다. 땀이 저리도록 찬 일기건마는 이마에서 구슬땀이 흐르고 전신은 후끈후끈하다. 이제는 집에다 왔거니 한즉 나뭇짐 벗을 용기도 나지 않는다./ 나는 여태까지 곱게 먹고 곱게 자랐다. 정신상으로는 다소의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의 괴로운 동작은 못 하였다. 그런데 나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다. 아버지는 내가 강보에 있을 때에 멀리 해외로 가신 것이 우급(于今) 소식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때까지 어머니 덕으로 길러왔다. 어머니는 내가 외아들이라 하여 쥐면 꺼질까 불면 날을까 하여 금지옥엽같이 귀여워하셨다. 또 어머니는 여장부라 할 만치 수완이 민활하여 그리 큰 돈은 못 모았어도 생활은 그리 근축치 않았다. 그레 한몫 두몫 모아서 맛있는 것과 고운 것으로 나를 입히고 먹였다.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부자유가 없이 자라났다. 이렇게 나뭇짐 지는 것도 시방 처음이다. 지금 입은 이 남루한 옷은 이전에는 보기만 하였어도 나는 소스라쳤을 것이다.(밑줄은 삭제된 회상 대목)</p>	<p>1. 경수는 몸을 나뭇짐을 짊어졌다./ 회야 부치거나 맡거나 가다가 거꾸러지더라도 일기가 사납지 않으면 좀 더 하려고 하였으나 속이 비고 등이 시려서 견딜 수 없었다./ 키 넘는 나뭇짐을 가까스로 진 경수는 끔끙거리면서 험한 비탈길로 영금영금 걸었다. 짐바가 두 어깨를 꼭 조여서 가슴은 빼그러지는 듯하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려서 까딱하면 뒤로 자빠지거나 앞으로 곤두박질 할 것 같다. 집에 괴로운 그는/ “이놈 놈의 나무를 왜 도적해가니?”하고 산 인자가 뒷덜미를 잡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괴로웠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나다가도 식구의 탈탈 떠는 꼴을 생각할 때면 다시 이를 갈고 기운을 가다듬었다./ 서북으로 흘러오는 차디찬 바람은 그의 가슴을 창살같이 쏜다. 하늘은 담북 흐려서 사면은 어둑충충하다./ 우리가 가까운 집까지 왔을 때, 경수의 전신은 땀에 후질근하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의복 속으로 쿼지근한 땀냄새가 물신물신난다. 그는 부엌 방문 앞에 이르러서 나뭇짐을 진 채로 평등 주저앉았다. (밑줄은 표현이 바뀌었거나 서술이 첨가된 부분)</p>

「토혈」 개작의 핵심은 「기아와 살육」에서는 서술전략의 변화에 따른 서술내용의 변화로 귀착된다는 데에 있다. 「토혈」에서 집안 내력과, 모친의 사랑과 근검한 생활상을 강조하다가 가장이 된 지금 궁핍한 처지로 전락했다는 서두의 회상 부분은, 「기아와 살육」에서 대부분 삭제되고 경수의 행위를 따라가며 청년가장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심리적 현실이 초점화되어 세부묘사가 강화된다. 그 결과 경수의 행동을 객관적 시선으로 좇아가며 그의 내면을 엿보는 방식의 서술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는 서사의 구도와 별개로 서사의 전개가 경수의 행위와 내면으로 집중됨을 의미한다.

「토혈」과 개작된 「기아와 살육」 사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목에서부터 그 지향과 효과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토혈’이라는 제목은 ‘1인칭 화자가 피를 토하듯 토로하는 빈궁상과 좌절’을 초점화한 명명이지만, ‘기아와 살육’이라는 제목은 ‘기아’의 현실과 ‘살육’의 환상으로 확장시켜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연계를 확장성을 지닌 다른 이야기임을 드러내고자 한 명명이다. 「기아와 살육」에서 시점과 인물명 변경은 그런 의도에 걸맞는 표면상 변화인 셈이다. 표2)에서 보듯, 두 작품 간 심리적 현실의 서술차는 확연하다. 환상의 서술양상이나 효과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표2〉 개작과 서술상 변화2-삭제와 축약, 구체화된 환상 장면

	「토혈」, 『전집 상』, 112-113면	「기아와 살육」, 『조선문단』, 30-31면
1. 심리적 현실의 서술차-삭제와 축약	나는 그만 풍주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목침을 베고 누웠다. 눈을 꼭 감았다. 배가 아프다. 나는 수년 되는 복통이 지우금 낫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픈 모양을 보이지 않았다. (삭제된 부분 밑줄 필자) 악독한 마귀가 염염한 화염을 우리 집으로 향하여 뿜는다. 집은 탄다. 잘 탄다. 우리 식구도 그 속에서 타 죽는다. 나는 몸살을 치며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한 환상이었다. (삭제	그는 현실이를 보고 “내가 자겠다. 할머니 있는 데로 가거라” 하면서 부엌에서 불을 때는 어머니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그냥 드러누웠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모두 죽어라! 하고 온식구를 저주했다. 모두다 죽어주었으면 큰집이나 벗어놓은 듯이 시원할 것 같다. ‘아니다. 그네도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내가, 내 새

	<p>된 환상 대목 강조, 밑줄 필자/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진정 되지 않는다. 머리맡에 있는 오랜 신문을 집어 들고 읽어 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의식 없이 읽었다. 온갖 생각이 뒤숭숭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신문으로 눈을 가리우고 눈을 감았다. 처의 신음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삭제된 부분-밑줄 필자) 모두 죽으면 시원하겠다고 나는 생각하여 보았다. 어머니도 죽고, 처도 죽고, 풍주도 죽고……. 만일 그렇다 하면 그 모든 시체들을 땅에 넣고 돌아서는 나는 어찌 될까? 모든 짐을 벗었으니 자유롭게 행동할까? 아! 아니다, 아니다! 그네들도 사람이다. 생을 아끼는 인간이다. 그네의 생명도 우주에 관련된 생명이다. 내가 내 생을 위한다. 하면 그네들도 나와 같이 생을 식(惜)할 것이다. 그네들도 인류로서의 권리가 있다. 왜 죽어? 왜? 죽으라 해? 나는 부지불식간에 주먹을 부르짖었다. (삭제된 부분-밑줄 필자)</p>	<p>을 아낀다 하면 그네도 그네의 삶을 아낀 것이다. 왜 죽으라고 해! 그네들을 이땅에 묻어? 내가 네리고 이 북만주에 와서 그네들을 여기다 묻어놓고 내 혼자 잘 살아가? 아아 만일 그러라 해보자! 무덤을 등지고 나가는 내 자곡자곡에 붉은 피가! 저주의 피가 콜작콜작 피일 테니 냐들 무엇이 바로 되랴? 응! 내가 왜 죽으라고 했을까? 살자! 뼈가 부서져도 같이 살자! 죽으면 같이 죽고!</p> <p>그는 무서운 꿈이나 본듯이 눈을 번쩍 떴다가 다시 감으면서 돌아누웠다.</p> <p>*서술이 축약되고 계급적 관점이 삭제됨. 환상 장면은 두 문장이었으나 삭제됨. 저주의 내용 축소, 생에 대한 의욕을 부가함.</p>
<p>2. 구체화된 환상</p>	<p>「토월」, 『전집 상』, 116-117면</p> <p>집으로 돌아온 나/아내의 물음/ 차마 약을 지어오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함/ 아내의 상태를 묻고 어머니의 행방을 물음/ 아내는 나와 함께 외출했으나 아직껏 오지 않았다고 답함/ 마음이 쓰이는 나/ 몽주는 어미 곁에서 잠들어 있음/ 왼손을 동어맨 까닭을 묻는 아내/ 아내의 물음에 그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낮에 다쳤다고만 대답함/ 밖에서 이웃의 이씨가 나를 찾음/ 정신 잃은 어머니를 들쳐 방에 눕힘. (환상 대목 없음)</p>	<p>「기아와 살육」, 『조선문단』, 35-36면</p> <p>집에 돌아온 경수/ 희미한 집안 풍경과 아내 곁에 앉는 경수/ 약을 지어오지 못한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함/ 아내에게는 지금 약을 짓고 있다고 거짓으로 답함/ 아내는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더니 고 반문함/ 흥, 하며 가슴이 막힌 경수 (밑줄은 아내의 반문과 구체화된 내면 심리)/ 어머니의 늦은 귀가에 불안해하는 경수/ 부뚜막을 노려보는 경수/ 괴물 환상</p> <p>“그는 모들뜬 눈을 점점 똑바로 떠서 부뚜막을 노려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새로 보이는 괴물이 있다. 그 괴물들은 탐욕의 붉은 빛이 어리어리한 눈을 날카롭게 번쩍거리면서 철관(鐵管)으로 경수 아내의 심장을 꼭 찢어놓고는 검붉은 피를 쭉쭉 빨아먹는다. 병인은 낮이 새카맣게 질려서 비둥거리며 신음한다. 그렇게 괴로워할 때마다 두 남녀는 피에 물든 새빨간 혀를 내두르면서 ‘허허하’ 웃고 손뼉을 친다. 경수는 주먹을 부르짖면서 소름을 쳤다. 그는 뼈</p>

		<p>가 찌릿찌릿 하고 염통이 쏙쏙 찢렸다. 그는 자기 옆에도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눈썹이 벌건 자들이 검붉은 손으로 자기의 팔다리를 꼭 잡고 철관으로 자기의 염통 피를 빨면서 홍소를 친다. 수염이 많이 나고 낮이 시뻘건 자는 학살이를 집어서 바작바작 깨물어 먹는다. 경수는 악 소리를 치면서 별떡 일어섰다. 그것은 한 환상이었다. 그는 무서운 사실을 금방 겪은 듯이 눈을 부비면서 다시 방안을 돌아보았다. 불빛이 어스름한 방안은 여전하다.(밑줄은 구체화된 환상 대목)</p>
--	--	---

「토혈」에서는 1인칭 서술자 시점에서 생활고와 심리적 현실이 주를 이룬다. 표에서 보듯 「기아와 살육」에서는 계급적 관점이 삭제되고 불과 두 문장이었던 ‘환상-꿈’ 장면을 뒤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반문이 삽입되어 표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무시하지 않더냐’라는 아내의 반문과 거짓말 하는 경수의 좌절감은 심리적 격차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필자 주), ‘환상-꿈’ 장면에는 괴물이 등장하여 이미지는 더욱 구체화된다. 환상 속 괴물은 병든 아내의 심장을 철관으로 찢러 피를 빨아먹고, 아이를 씹어먹는다. 이 감각화된 환상은 한층 구체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며, 방안의 절망적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가족이 죽었으면 하는 심리적 가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면화한다.

「기아와 살육」에서 환상의 장면화는 빈궁의 비극상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현실을 부각시키는 장치에 가깝다. 이 장치는 심리적 동요, 좌절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환상은 가난과 궁상이 개인적 무능력이 아닌 구조적 현실의 외재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확보하며, 아내와 모친, 아이의 죽음이 심리적 현실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현실 차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예다. 환상 장면이 5장 끝부분으로 옮겨진 것이 인물의 행위와 심리적 현실에 대한 일관성, 통일성을 획득하는 서술의 조정이었다면 환상 장면의 구체화는 비극

의 사회적 국면이라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개작의 '선택과 집중'을 잘 보여주는 국면이다.

이경돈의 언급대로,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시점 변경, 구체적인 지명 삭제, 인물명 변경('명주'에서 '학실'로) 등은 '완성도와는 별반 관련없는 요소'이다.²⁹⁾ 3인칭 관찰자 시선으로 개작되면서 배제된 것은 1인칭 시점이 발휘하는 생생한 현장성과 인물 내면에 미만한 절망과 분노의 역동성이지만,³⁰⁾ 이러한 감소된 서술효과를 상쇄시켜주는 가치와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겨난다. 그 의문은 1920년대 중반 제기된 '문학'과 '예술' '소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서해 소설이 갖는 개작의 문화사적 맥락을 되묻는 물음이기도 하다.

원본의 부재로 인해 추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지만 '감상' 「탈출기」를 '소설' 「탈출기」로 개작하는 것이나, 「토혈」을 「기아와 살육」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글쓰기 특징은 앞서 보았듯이 '감상(문)'에서 '소설'로 이행하는 가장 뚜렷한 면모이다. 개작의 행위에서도 일관된 서술과 통일성, 서술의 축약과 내면의 세부 묘사를 통해 심리적 현실을 감각화하며 표현의 구체성이 한결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들 특징이야말로 최서해가 지향했던 '근대소설 양식'의 형식적 조건이자 내용이었던 셈이다. 그의 개작은 '1920년대 문화정치'라는 시대 변화와 함께 '예술의 창작' '참된 예술'을 표방한 『조선문학』의 문화 이념과 기획이 추구한 '조선적 현실의 재현'에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의 개작은 1910년대 계몽적 논설 대상에서 근대지를 습득하고 '정치화된 대중'의 출현과 함께하는 맥락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기록서사와 신경향문학, 국민문학이 한데 중

29) 이경돈, 같은 논문, 134-135면.

30) 이경돈은 리얼리티의 문제를 픽션과 논픽션을 동일 장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탈이긴 하지만, 최서해의 경우는, 상상적 허구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을 실사한 기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설 개념 성립과 소설 형성과정이 만들어낸 독특한 일면이라고 본다. 이경돈, 같은 논문, 138면.

첩된 지점에 놓인다. 최수일은 이경돈의 논의를 참조하여 「토혈」을 개작한 「기아와 살육」이나, ‘감상문’ 「탈출기」 또한 1인칭 시점의 기록서사에 가까운 서간체소설 양식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벽』에 소재한 기록서사가 1910년대 계몽적 논설을 거쳐 박달성의 기록서사 같은 사례를 거쳐 1920년대 중반 최서해의 신경향문학, 프로문학과 연결된다고 보았다.³¹⁾ 이런 관점에서는 1920년대 중반 전성기를 구가한 최서해 소설은 근대소설 양식의 총족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 내용적 측면에서 일제의 검열체제와 마주서는 일은 필연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토혈」의 개인적 서사가 「기아와 살육」에서처럼 3인칭 시점으로 맥락화될 때 거기에는 계급과 제도에 대한 각성이 ‘기입되는/기입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최서해의 체험서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한 적의(완화시킨 표현으로 ‘반항 심리’)가 표출되면서 현실 재현의 핏진함을 넘어 정치성을 획득한다. 정치성의 획득은 필연적으로 검열기구와 마주서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잡지 편집과는 별개로, 최서해는 창작과 개작에서 지향했던 근대소설의 민족적 현실(그의 표현대로라면 ‘조선적 현실’), 곧 ‘민족 재현의 소설화’는 검열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에 따라 검열을 의식하는 ‘자기검열의 차원’을 낳았다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3. 작품집 수록작의 선별 기준과 검열의 연관

최서해는 8년간의 문학적 생애에서 작품집 『혈흔』(1926)과 『홍염』(1931)을 간행했다. 두 작품집은 그가 성취한 소설세계의 정점을 보여준다. 『혈흔』이 그의 초기 대표작 10편을 망라한 정점이었다면 두번째 작품집 『홍염』은 작은 정점에 해당한다.

31) 최수일, 「『개벽』 소재 ‘기록서사’의 양식적 기원과 분화」, 『반교어문연구』 14집, 424-425면.

『혈흔』에 수록된 작품(「탈출기」 「향수」 「기아와 살육」 「보석반지」 「박돌의 죽음」 「기아」 「매월」 「미치광이」 「고국」 「13원」 등)을 일별해 보면 평판작 위주로 선별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탈출기」 「향수」 「기아와 살육」 「박돌의 죽음」 「미치광이」 「고국」 등은 간도와 북방지역 일대를 유랑하는 민족 유랑의 일화라는 점에서, 앞서 살핀 ‘민족 재현의 리얼리티’와 ‘근대소설로의 도정’에 해당한다. 물론, 계층차로 인한 낭만적 사랑의 좌절을 그린 「보석반지」나, 여성의 신분적 한계와 절망을 다룬 「매월」, 노동조직 속 연대감을 소재로 한 「13원」처럼 ‘신경향’으로만 포괄하기 힘든 작품도 있다.

『홍염』(1931)은 첫 소설집 『혈흔』과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다. 표제작 「홍염」(『조선문단』18호, 1927.1)³²⁾과 「저류」(『신민』18호, 1926.10), 「갈등」(『신민』33호, 1928.1) 등 단 3편만 수록한 이 두 번째 작품집은, ‘단편집’이라는 표제처럼 단출하지만 1928년 후반 이후 문학장에서 배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미심장하다. 우선, 작품집의 선별기준은 소설세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혀지기에 충분하다. 「홍염」은 이도백하를 배경으로 중국인 지주와 소작인인 문서방 일가의 갈등이 딸을 빼앗기고 아내가 병들어 죽은 뒤 지주를 도끼로 살해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최서해식 신경향’에 속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아와 살육」 「박돌의 죽음」 「이역원혼」 등과 같은 계열이라는 점에서 그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하층민에 대한 연민과 자기성찰을 보여주는 「갈등」, 야기장수설화로 환담을 나누는 농촌의 저녁 일상을 스케치한 「저류」는 자기소설에 대한 지속과 변화를 담아내려 한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최서해가 두 권의 작품집에 선별 수록한 작품수가 모두 13편에 그친다는 것은 검열과의 관련도 추정해볼 수 있다. 전체 작품이 60여 편이고 작품집 수록작 13편은 20%에 불과하다는 점은 검열과 연관이 있을

32) 「홍염」은 창작일자가 ‘1926.12.4 오전 6시작’으로 부기돼 있다. 최근, 『탈출기-최서해단편집』, 문학과지성사, 2004, 428면.

개연성이 크다. 불가항력의 홍수와 해산후 병든 아내를 다룬 「큰물 진 뒤」(『개벽』64호, 1925.12), 활극적 요소가 강한 「설날밤」(『신민』9호, 1926.1), 경수의 항일운동과 모친의 귀향을 다룬 「해돋이」(『신민』11호, 1926.3),³³⁾ 간도이주와 중국인 지주와의 갈등 속에 살해된 재만 조선인의 비극을 다룬 「이역원혼」(『동광』7호, 1926.11)나 서울살이의 곽박함을 전하는 서간체의 「전아사」(『동광』9호, 1927.1), 상조회 활동과 노동자의 가난한 서울살이를 다룬 「먼동이 틀 때」(『조선일보』, 1929.1.1-2.26 연재), 월급도 제대로 못받아 밀린 월세로 참담한 잡지사 직원의 일상을 그린 「무명초」(『신민』 52호, 1929.8) 등은 평판작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집에는 수록되지 못했다.³⁴⁾ 이런 측면은 최서해 자신의 선별 기준 외에 검열 통과 여부가 작용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작품 선별의 기준 하나는 ‘신경향’으로 통칭되는 자신의 ‘작가적 위상’을 구축한 1924-1926년 사이의 평판작을 1차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문단과 세평에 호응한 것으로 볼 여지는 별로 없다. ‘개제금지’를 당한 「살려는 사람들」(『조선문단』7호, 1924.2)의 사례는 시사적이다.

검열 문제를 작품집에 수록할 작품을 결정하는 외부적 요인의 하나로 삼는 까닭의 하나는 검열기구의 변화와 검열의 시대적 추이,³⁵⁾ 검열관의

33) 「해돋이」가 작품집에서 배제된 것은 검열로 인한 주인공의 만주에서의 활동과 투옥을 다룬 부분에서 복자가 많은 점에서 보듯 검열로 인한 부담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돋이」, 『전집상』, 207-209면.

34) 최근 광근이 편집한 문학과지성사관 한국문학전집의 『탈출기-최서해 단편선』에는 「고국」 「탈출기」 「박돌의 죽음」 「기아와 살육」 「큰물 진 뒤」 「백금」 「해돋이」 「그믐밤」 「전아사」 「홍염」 「갈등」 「먼동이 틀 때」 「무명초」 등 13편을 수록해 놓았다. 광근은 가족과 하층민에 대한 일관된 시선을 중심으로 삼되 최서해의 시야가 신경향의 요소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35) 1924년 한해 동안 언론계는 ‘언론탁탄핵회’를 내걸고 항일 언론투쟁을 전개했다. 그해 4월부터 언론계는 친일단체를 규탄하면서 언론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총독부의 과도한 언론탄압을 탄핵하는 대규모 민중집회를 계획했으나 일제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로 무산되었다. 언론투쟁의 발생 배경과 경과에 관해서는 정진석, 『언론총독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112-126면; 한기형, 『식민지문역』, 성균관대 출판부, 2019, 5장 ‘대중매체의 허용과 문화정치의

업무가 가진 이중삼중의 감시체계 등에서 연유한다.³⁶⁾ 우선, 작품을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 게재하는 현실과, 작품집으로 발행하는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볼 만하다. 신문 잡지는 작품 수록 여부보다 중도에 게재 중단되는 사전, 사후 검열의 병행방식이나, 작품집은 납본을 통해 검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때 작품집의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다. 검열의 자의성과 불투명한 검열 기준에 대한 노림수 하나는 일제의 검열 장치를 통과할 만한 작품을 선별하거나, 정치성을 배제한 ‘예술로서의 소설’이라는 선별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서해의 두 작품집은 애착을 보인 평판작이라는 선별기준 외에 ‘검열 통과’라는 기준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³⁷⁾

두 권의 작품집에서 암시되는 선별 기준 중 ‘최서해식 신경향’의 지속이라는 최소 요건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하지만 계급적 시야의 확장이라는 충분조건은 고려 대상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다. 이 불균형과 형용모순은 ‘참된 예술의 이념’에 충실한 ‘조선어와 조선문학’이라는 필요조건과 함께, 신경향문학으로서 작가적 입지를 공고하게 해준 작품들을 선별하는 한편, 검열 통과에 충족될 ‘공식대본’³⁸⁾을 선별하는 자기검열에서 연유한

통치술 153-194면 참조. 정진석은 다치다(立田清辰)의 저작을 참조하여 일제의 언론 통제가 ‘감정적 독립 갈망시기(1920-1924)’, ‘이론투쟁시기(1924-1929)’, ‘합법적 논쟁시기(1929년 이후)’를 거쳐 ‘친일강요시기(1931년 이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일본의 침략과 열강세력의 언론통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개정판, 39면.

36) 한만수는 단행본 검열과정에서 납본 검열, 교정쇄 검열 업무를 수행하는 검열관 자신들도 이중삼중의 감시체제하에 있었으며 검열 중 단행본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한만수, 『허용된 불온』, 소명출판, 2015, 87면, 226면.

37) 실제로 작품집 『홍염』에서 ‘김이라는 자가 자식의 병을 낮게 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는 문구’의 삭제 사실이 발견된다. 『조선경찰월보』30, 18면.

38) ‘공식대본public Script’이라는 개념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공개된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한 일종으로 약칭이다. 이 말은 권력관계를 호도하지는 않으나 모두 말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스코트 C.스콧은 허구적 진술이 권력관계에서 공모하는 형태를 띠는 점을 적시해놓고 있다(제임스 C.스콧, 같은 책, 28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검열이라는 제도는 검열관과 검열기구가 출현하면서 지배자인 권력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형성되며, 검열을 통과한 텍스트가 ‘공

것으로 보아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4. 최서해의 검열 관념과 검열 피해상

최서해가 검열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검열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 한번, ‘문인 앙케이트’인 「문단 제가(諸家)의 견해」(『중외일보』, 1928.8.2.)에서였다.³⁹⁾

당면한 중대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외다. 생활 문제도 중대문제이요 검열 문제도 중대 문제이요 수양 문제도 중요문제외다. 이 여러 가지 문제는 모두 중대하여서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어느 것이 중대치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도 수양이 부족하면 역시 그 꼴이 그 꼴이 될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반드시 수양에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타락되는 수가 많습니다.) 또 설사 생활이야 안정되고 수양이 충분하여 훌륭한 작품을 낳았다 하더라도 검열이 잔혹하면 그 작품은 무참한 주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똑같이 현하 조선의 문단이 전체적으로 당면한 중대문제라고 생각합니다.(밑줄 강조-인용자)

그가 서술한 ‘당면한 중대문제’란 자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문단 전체가 당면한 현안이라는 육성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최서해는 ‘문단이 당면한 중대문제’로 ‘생활(생계)’과 ‘검열’과 ‘(작가의) 수양’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생활 문제’를 꼽은 것은 그를 끊임없이

식 대본'이며 검열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된 텍스트는 비공식 대본이 된다.

39) 최서해, 「제재 선택의 필요」, 『중외일보』 1928.8.2, 광근 편, 『최서해전집 하』, 문학과지성사, 1987, 344면. 설문은 1항 ‘당면과제의 중대문제’, 2항 ‘창작의 제재 문제’, 3항 ‘대중 획득의 문제’, 4항 ‘추천도서’ 등이었다. 이하 표기는 『전집 하』 등으로 표기함.

괴롭힌 가난과 생계수단이 되지 못하는 열악한 원고료에 매달려야 했던 궁벽한 형편을 떠올려준다. 그는 생활 다음으로 검열 문제와 작가의 수양(이 대목은 이광수의 「문사와 수양」을 연상시킨다. 인용자)를 거론하였다. 검열을 두 번째 항목에 배치하고 있어서 논지에서 비껴난 듯하나 이는 생활과 문사의 수양 사이에 문구를 끼워놓은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 까닭은 생활과 수양 문제에 이어지는 표현에서 검열의 폭력을 강도높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최서해는 ‘생활이 안정되고 수양이 충분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검열이 잔혹하면 그 작품은 무참한 주검이 되고 말 것’이라 쓰고 있다. 아무리 생활 향상이나 수양 문제가 충족된다고 해도 검열이 존재하는 한 뛰어난 작품 생산이 불가능함을 표명하고 있다. 검열의 가혹함을 떠올리기에 족한 이 표현은 검열에 관한 최서해의 평소 생각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그는 작품을 ‘무참하게’ ‘주검’, 곧 ‘죽은 텍스트’를 만들어 버린다는 지적을 넘어 ‘검열이야말로 조선문단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밝히는 셈이다.

실례로 최서해가 받은 검열의 피해는 작품집 『홍염』의 검열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홍염」 중 특정 문구가 치안방해 혐의로 삭제 처분을 받았다. 일제의 대표적인 검열자료의 하나인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홍염」 중 “김이라는 부호가 자신의 자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용인을 죽여서 그의 인육을 약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문구”가 1931년 2월 21일 ‘치안방해’ 혐의로 ‘삭제’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이 기술돼 있다(표3) 참조). 이는 작품집 선별기준에서 자신의 문학적 특성을 수렴하는 기준만큼이나 검열 저축 여부가 문제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표3〉 단편집 『홍염』의 검열40)

金ト云フ富義ニガ自分ノ息子ノ病氣ヲ癒ス爲ニ病人ヲ殺シテ其ノ肉ヲ藥ニ使 ツタトイフ文句	野澤短編小説集(紅煙) 小説録藏堂	六二二二一 六二二二二 六二二二三 六二二二四 六二二二五
	肥 事 要 旨	京 城 崔 鶴 松

〈표4〉 『폭풍우 시대』의 검열41)

不問 東亞日報 四月四日付 崔曙海

吾人ノ環境ノ吾人ヲ放浪ノ故ニ出テ去リタル老人ト
 同ト境遇ノ我同胞ニ此ノ悲レイ話ヲレタイ
 曹東九ノ其ノ主人公デアラン

曹東九ノ屍体ヲ埋葬シテケリ八年ノ前ニ
 僕等曹東九ヲ知リタルノ八十年前ノ秋デアラン
 二千万ノロカヲ流シテ出ル聲ヲモテ呈ト云フ江山ヲ動カ
 シテ餘リテ東西南北ノ其ノ音波ヲ傳ヘテ時デアツタ
 ソレヲ朝鮮ノ兇手ニ江ノ越ヘテ又ハ海ヲ越エテ出テ行
 カネハナク運命ノ時デアツタ

私ハ其ノ一人デアツタ時上ハ二重モ追イテ木ヲ難割リ
 指マレテ私ニ向テ聲ヲ出テイノシノレト泣キ下リ

嗚呼吾人モ人ゾテル世ルモ吾人ハ人トシテノ待遇ヲ受
 ケテ居ラス吾人々人トシテノ權利ト義務ヲ持メネハテ
 アヌソウラレバナル程大事業ヲレナケレハナク又諸君
 結末レナイ熱イ愛ヲ以テ同胞ノ爲メヤリマセウ吾人
 ノ財産ハ此レ又ダヌト所ニ状シテ臆リ當メナケレハナ
 リマセ又云々

右治安妨害ト認メ任意逮捕揚載ヲ中止セシム

또한 김경수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현대평론』(1927.5)에서 원고를 압수당한 윤기정의 「빙고(氷庫)」와 최서해 「이중(二重)」, 『신민』(1927.5)에서 원고를 압수당한 「박노인 이야기」는 인쇄 직전 압수된 경우로, 목차와 본문, 편집후기에도 전혀 언급되지 못한 채 투고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⁴²⁾ 김경수가 소개한 검열자료 『朝鮮の言論よ世相』⁴³⁾에는 이야기가 요약된 방식이긴 하나 작품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한강의 얼음 채취를 둘러싸고 조선인 인부들과 일인사업자들이 벌이는 임금 투쟁을 소재로 한 윤기정의 「빙고」, 재조일본인 전용 목욕탕에 조선인을 입장시키지 않는 세태에 분개하는 최서해의 「이중」,

40) 『조선출판경찰월보』 30집, 1931.3, 8면.
 41)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언문신문불온기사개요』, 1928, 31, 33면(부분).
 42) 김경수는 『현대평론』에서 「빙고」가 19월, 「이중」이 15월 삭제된 것으로 적은 것을 바탕으로 200자 원고지로 「빙고」가 약 92매, 최서해의 「이중」이 약 73매 분량이며 「박노인 이야기」도 그에 준하는 분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수, 같은 논문, 11-12면.
 43)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朝鮮の言論よ世相調査資料集 21輯』, 大海堂, 1927.10.

의식 있는 조선청년이 일본인 행세를 하던 양복신사를 응징하며 민족적 각성을 촉구한 「박노인 이야기」는 ‘배타(排他)’ 항목 중 ‘반일감정 조장’ 혐의로 삭제 처분된 경우다.⁴⁴⁾ 연재가 중단된 「폭풍우시대」(『동아일보』, 1928.4.12)도 『언문신문불온기사개요』에서는 ‘치안방해’ 혐의로 게재중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표4 참조). 이렇게 최서해는 만주 일대와 북방에서 전개된 사회운동과 야학(「폭풍우시대」), 재조일본인과의 갈등(「이중」), 일본인 행세를 질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점(박노인 이야기),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는 농촌의 절망과 탄식을 다름으로써(「농촌야화」) 검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열 피해에 따른 자기검열의 양상은 검열의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항의 피력과 은폐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1920년대 중반 근대소설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는 단순히 ‘신경향’으로 포괄되지 않는 폭넓은 소설세계를 보여주는 점에서 확인되듯,⁴⁵⁾ 검열의 폭력은 근대 국가장치에 대한 침묵과 결여된 서술(침묵 또는 부재처리), 순응과 우회 같은 자기검열의 글쓰기를 낳은 요인이었음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폭풍우시대」에서 보듯, 만주와 북방 일대의 사회운동을 의욕적으로 서술하려 했으나 개인의 회상에 그치고 만 서술상 특징은 검열과 관련해서 유념해서 살펴야 할 사례의 하나다. 검열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특성은 사건의 치밀한 재현을 방해하고 사건을 축약해서 언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심리적 심급으로 작동하는 심리기제를 가동시킨 셈이다.

그의 소설이 식민지조선인의 생존과 직결된 제도적 모순과 가난을 전

44) 김경수는 1926년 『동광』 8월호 수록할 예정이었던 「농촌야화」 또한 삭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 소개하고 있다. 김경수, 같은 논문, 11면.

45) 박상준은 『혈혼』과 그의 소설 전반을 조감하면서 서해문학의 폭과 갈등 형상화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자연주의 소설의 시초’를 보여주고 극단적 행위의 저변을 동시대 소설과 비교 대조하면서 자연주의와 비자연주의 사이에 사회주의적 자연주의 소설과 알레고리 소설에 이르는 폭넓은 범역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박상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출판, 2000, 328-395면, 455면.

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와 살인, 죽음과 투옥으로 귀결되는 서사 양상이 미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한 데에는 검열과 관련 다양한 조건과 문화사적 맥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두 권의 작품집과 수록되지 못한 여타작품 사이⁴⁶⁾에 가로놓인 간극에는 사회적 평판과 작품의 미적 완성도를 전제로 한 검열 통과 여부 등이 한데 결합된, 작가가 자신이 상상적으로 구획한 검열과 자기검열의 분할선이 희미하게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그가 피력했듯이, 가난과 수양과 검열 문제가 모두 그 자신과 조선문단 전반에 걸쳐 있는 대단히 절실하고 불리한 조건이라는 의견 표명을 상기해 보면, 그 단서는 식민지조선의 구조적 모순과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는 제국의 검열기제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미적 완결성의 결여를 유발하는 문화환경이 정치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든다. ‘문인 기자’로서의 태부족인 작가 수양과 가난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그의 소설적 한계로 지적되는 구조적 완결성 결여, 소품화 경향, 작품 소재의 반복성과 연계된 문제이나, 검열로 인한 창작 중단, 검열로 인한 게재중지나 원고 압수 등으로 인한 미완작의 속출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래, 「살려는 사람들」은 『조선문단』 7호(1925.4)에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검열로 게재금지 조치를 받아 서문만 남은 작품이다. “오늘은 갑자 11월 15일” 환갑을 맞은 모친을 기리기 위해 “이 소설(「살려는 사람들」)을 붓을 잡았다.”(『전집 상』, 119면)라는 서문 내용은 「해돋이」를 게재 금지

46) 제1계열과 2계열로 분류한 경우는 채훈, 「최서해연구소위 제2계열의 작품을 중심으로」(『논문집』 18권, 숙명여대, 1978, 304-307면, 전체 303-321면)이다. 그는 제1계열에는 「토월」 「고국」 「탈출기」, 「기아와살육」, 「홍염」, 「폭풍우시대」, 「십삼원」 「형수」 「살려는 사람들」 「박들의 죽음」 「큰물 진 뒤」 등, 주로 데뷔 직후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경우와, 그 외의 것을 2계열로 나누고 있다. 그는 제2계열에 1. 결혼생활 제재(금붕어), 「부부」 「8개월」 「갈등」 「아내의 자는 얼굴」 등, 2. 작가 기자 생활을 제재로 한 작품(「5원 칠십오 전」 「서막」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전아사」 등) 3. 잡다한 제재(「매월」 「그믐밤」 「보석반지」 「누이동생을 따라」 「기아」 「이역원혼」 「미치광이」 「무서운 인상」 「저류」 등)로 나누었다. 그의 논의는 최서해 연구가 본격화되는 초기의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된 동일작이라 추론해볼 근거의 하나이다. 「해돋이」 말미에 부기된, “어머니 회갑 갑자 11월 15일 양주 봉선사에서”라고 부기된 내용과 창작일자(꼭근 편, 『전집 상』, 223면)가 「살려는 사람들」 서문에 명기된 창작일자와 내용이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해돋이」는 게재 금지로 유실된 「살려는 사람들」의 동일작으로 추정된다. 창작일자 부기나 서문 내용이 앞뒤로 뒤바뀌어 배치된 점은 검열에 통과되지 못한 작품을 다른 매체에 수록한, 작품을 살리려는 생존술에 가깝다.⁴⁷⁾

『조선문단』 수록작 「살려는 사람들」의 게재금지 단서는 「해돋이」에서 복자처리된 부분의 불온성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 작품은 두 개의 이야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 김소사와 손자 몽주가 동행한 귀환담이 액자의 바깥이야기다. 액자 안쪽 이야기는 작품 3-7장의 아들 만수의 행로이다. 사회운동과 투옥, 출옥후 간도로 건너갔다가 일본 경찰에 다시 체포, 압송되는 만수의 행로를 담은 액자 내부 이야기는 1926년 『신민』에 수록되면서 집중적으로 복자처리된 5장만 피해를 겪은 뒤 검열을 통과되었던 셈이다. 서문만 남은 「살려는 작품」의 존재를 「해돋이」와 관련지어 보면, 제목을 바꾼 뒤 작품 말미에 창작일자와 모친의 환갑일을 명기함으로써 작가 스스로 ‘동일작’임을 암시했을 개연성이 높다.⁴⁸⁾

창작일자를 부기해둔 최서해의 행위는 작품의 생존 여부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최서해 자신의 검열관과 자료 유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창작일자 명기는 저작자 개념을 넘어 검열로 산실될 우려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검열로 게재되지 못한 작

47) 한만수, 같은 책, 4부 ‘검열 우회로서의 1930년대 텍스트’(297-424면)에서 이를 통칭하여 ‘검열 우회’로 지칭한다. 그는 ‘검열우회’의 양상을 거부, 우회, 수용 등으로 구분하고 그 주체를 인쇄자본의 외적 검열과, 작가의 내적 검열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48) 덧붙여 언급하면 최서해의 작품 중 「탈출기」와 함께 선의 가작으로 부기된 ‘감상」 「여정에서」의 개작된 소설이 「살려는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다. 선외 가작 ‘감상’의 개작인 소설 「탈출기」가 수록된 시기와 멀지 않다면, ‘여정’을 담은 작품은 「살려는 사람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품을 훗날에 제목을 바꾸어 다른 매체에 수록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는 검열관의 자의적인 검열 처분을 비롯하여 개작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가의 기록습관이다. 「살려는 사람들」과 「해돋이」는 그런 측면에서 잡지편집자, 문인작가였던 최서해의 경우, 작품 생존을 도모하려 한 사례이자 검열에서 살아남은 동일작이었을 개연성이 높다.⁴⁹⁾

5. 검열과 주름, 저항적 글쓰기: 「저류」와 은폐된 정치성

최서해 소설이 전유해온 ‘조선적 특수성’은 민족집단의 유량성과 궁핍한 사회경제적 면모로 수렴되지만 그 서사적 현실은 최저계층의 일상에 범람하는 가난과 공상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 세계는 가난과 공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그 대책점에 놓인 파괴적 힘은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표기할 뿐 침묵해 버린다. 언급 자체가 생략되는 현상은 홍수와 같은 자연 재난의 국면만이 아니다. 재난의 국면에서도 ‘제도의 희생자’들이 겪는 일상의 면면만 재현될 뿐 재난과 불행은 초래한 구조적 현실에 대한 형국은 언급 자체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나쳐 버린다. 최서해 소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생략하듯 지나쳐버리는 대목은 근대문물과 근대의 국가장치다.

「탈출기」에서 연명조차 힘든 일가의 일상은 경제리는 근대국가의 장치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비롯된다. 산주인이 고발하면 불문곡직하고 수색과 구타로 일관하는 경찰 또한 국가장치의 일상적 본질 자체가 폭력적이

49) 박광현은 이태준의 「오룡녀」의 경우처럼 『조선문단』 문예옹모 입선작으로 뽑혔으나 『시대일보』로 발표된 점에 주목하여, 신문과 잡지의 검열 기준이 서로 달라 허가, 불허 판정의 근거가 불확실한 점, 검열 원칙이 지적 생산물인 문학작품에 균등하게 적용되었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검열관의 기분, 환경, 컨디션 등에 좌우되었다고 본다. 그는 岸加四郎의 글 「出版檢閱餘滴」(『국민문학』, 1941.11)에서 그러한 사례를 들었다.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에 관한 고찰」, 『한문국문학연구』 3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98면.

라는 점을 환유한다. “호소할 곳이 없”(「탈출기」, 전집 상, 22면)고 ‘말할 수 없는 주체’가 바로 이들의 특성이자 현실인 셈이다. 이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은 남루하고 궁핍한 문간방이며(「탈출기」 「기아와 살육」 「큰물 진 뒤」 「보석반지」 「갈등」 「부부」 등), 이와 대척점에 놓인 공간은 신작로 공사 현장이나 경찰서, 병원과 약국(「향수」 「기아와 살육」 「박돌의 죽음」), 시장통(「박노인이야기」)이다. 등장하는 우체국, 기차역과 항구(「전아사」 「무서운 인상」 「해돋이」), 재조일본인 주거지역 목욕탕(「이중」), 잡지사과 신문사(「서막」 「전기」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등)와 같이 주로 근대의 국가장치가 작동하는 정치경제의 공간이다.

최서해의 소설에 가한 검열의 깊은 상처와 주름은 결과적으로 이들 ‘근대의 국가 장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재현하지 못하게 차단했던 셈이다. 데뷔작 「토혈」로부터 연재장편 『호외시대』에 이르는 서사의 세계에서 근대장치들의 공간은 「고국」이나 「향수」에서처럼 ‘만주의 찬바람을 맞는 모친에게 바람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주인공의 자신감과는 무관하게 곁을 내주지 않는 형국이다. 가난에 기댄 체험서사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혹독한 자연 환경보다는 중국인 지주나 경찰, 일본인들에게서 배제되고 희생되며 죽음을 맞기 일췌다. 차별과 폭력은 경제의 수탈방식의 본질 인만큼 간도와 북방 지역은 고스란히 식민체제를 환유한다. 국가장치는 서술 지평에서는 물러나 있어서 부재나 침묵의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대신 일상의 국면에서는 가난과 궁상의 격렬한 풍경들로 가득하다. 이들 서발턴은 몰래 나무를 하다가 경찰에 고발당해도 항변조차 못하고(「탈출기」), 절박한 처지에도 인류와 가족 사이에 주저하며(기아와 살육), 사랑마저 보석반지에 팔려가는 것을 감내할 뿐 자본을 축적하거나 이를 대체할 능력이 없다(「보석반지」). 이들은 약값조차 없어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 가며(박돌의 죽음), 끼니 때문에 아이를 부유한 집 대문 앞에 갖다놓으며 먹을 걱정 없는 삶을 기원하고(「기아」), 신분의 한계 때문에 상전의 추근거림에 죽음으로만 저항이 가능한 처지로 내몰리며(「매월」), 끼니를 잇

지 못해 순사들의 성화에 눈 치우는 시늉을 하며 힘없이 쓰러진다(「고국」).

이 세계는 서발턴의 재현 자체가 저항의 함의를 갖지만 「토혈」의 개작을 거친 「기아와 살육」에서처럼 개인과 사회의 차원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개작으로 선명해졌으나 정치성의 획득에 이르는 재현의 경로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 경로에서는 ‘철관’ 이미지에서 보듯,⁵⁰⁾ 환상을 꿈의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계급적 각성과 현실적 공포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활용되기도 한다.

「기아와 살육」에서 강화된 환상에 등장하는 ‘괴물의 철관(鐵管)’은 병든 아내와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도구, ‘식민지근대의 수탈경제’라는 장치를 환유하는 매개물이다. 환상은 저항성을 담지만 직접 서술 대신 꿈과 이미지로 된 애매성ambiguity의 영역에 밀어넣어 검열을 우회하거나 통과하는데 활용된다. 하지만, 꿈과 환상은 재현되지 못한 근대 국가 장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꿈과 환상 너머에 있는 근대 국가장치는 침묵과 잉여의 지점으로 처리되면서 이야기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최서해 소설에서 서사의 구조의 취약함 또는 균형상실은 반복되는 강도와 살인, 방화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의 표출에서 보듯, 개인의 절망과 극한적 분노, 파탄으로 귀결되면서 현현되는 절규 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환상은 그런 맥락에서 검열의 불투명하며 비가시적인 장벽에 맞서는, 정치경제적 수탈을 ‘절망과 분노와 공포’로 반죽한 감정-꿈으로 재현해낸 저항의 유력한 서술전략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항일/친일, 예술성/통속성의 이분법적 구도’ 대신 검열의 장에서 최서해 소설을 다시 읽어 보면,⁵¹⁾ 『호외시대』는 자기검열의 글쓰기를 보여준

50) 이 글 2장의 표2) 참조.

51) 배정상, 같은 논문, 143면. 배정상은 1930년 2월 『매일신보』의 개편과 함께 정식사원이 된 최서해는 비난에 가까운 세평과는 달리, 사회조망력을 확보한 장편 연재를 시작한 점에 주목하

사태임을 절감하게 된다. 배정상은 간도 일대에서 사회운동과 야학활동을 감행한 세 청년의 이야기인 「폭풍우시대」(『동아일보』, 1928.4.4-12)가 검열로 게재금지된 점에 착안하여, 같은 야학활동을 제재로 삼은 『호외시대』와의 연관에 주목하고 대중서사를 검열의 회피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호외시대』에서 양두환이 활동했던 ‘삼우회’에 대한 설명 부재만이 아니라 이 장편에는 홍재훈이 거액을 신문사 투자나 자본가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 경과, 정애 아버지의 신원 등에 대한 설명 부재도 검열을 의식한 결과로 본다.⁵²⁾ 서술의 결핍은 신문연재라는 특성상 검열로 인한 연재중단 사태를 방지하려는 자기검열의 전형에 해당하지만, 야학활동에 매진하며 자본에 유린되는 청년들의 재현을 크게 제약하며 사건의 지평을 제약하며 대중서사로 내모는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사회운동 내용이 ‘치안방해’로 게재중지된 미완작 「폭풍우시대」나 「용신난(1)」에서 보듯,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 ‘민족’ ‘혁명’ ‘해방’ 같은 특정 금지어들이 복자 처리되는 양상은 텍스트상에서 검열의 상흔이나 훈장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공포와 금제의 효과를 노린 식민권력과 검열자들의 책략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할 때 검열장에서 소설은 ‘무엇을 은폐하려 했는가’라는 관심과 별개로, 작가는 검열을 우회하며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는가(혹은 생존시켰는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⁵³⁾ 그러한 사례 하나가 『홍염』에 수록된 「저류」(1926)다.

면서 소품 「취 죽인 뒤」가 『매일신보』에서 16회에 이르는 단편으로 개작되면서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고 가난한 일상을 계급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예로틱한 분위기를 담아 대중성도 확보하는 특징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은 최서해가 문인기자로서 대중성을 구비했고 신문 연재에 대한 의욕을 보인 것이라 본다(150-151면).

52) 배정상이 주목한 것은 신문연재라는 특성과 검열의 연관이다. 그는 『호외시대』에서 특히 식민지조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야학활동’만 다룰 뿐 식민지배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배제, 합구한 점, 작품 속 식민 주체인 일본인과 식민 지배 시스템의 재현 자체를 찾기 어려운 점을 두고, 검열을 의식한 자기검열, 검열을 우회하는 글쓰기의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한다. 배정상, 같은 논문, 155-157면 참조.

이 작품은 가뭄 속 농민들의 탄식과 웅얼거리는 대화만으로 된, 최서해 소설에서는 자주 애용되어온 서간체 양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작품이다. 작품에는 뚜렷한 사건 전개가 없다.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담화가 빚어내는 언어적 풍경이다.⁵⁴⁾ 「저류」는 “모깃불가에 민상투바람으로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끝없는 이야기”(「저류」, 전집 하, 27면)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석의 시 「모닥불」을 연상시키는 작품 분위기는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는 농민들을 등장시켜 심상한 듯 가뭄을 걱정하며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담화의 평온한 풍경을 연출해낸다.

김도감 영감이 무릎에 앉힌 잠든 손자를 안고, “간도로 멀쩡하니 ○○가는 게 해롭지 않지… (한참을 꿇었다가) 어서 빨리 ○○이 뒤집히구 ××이 나아 하지…….”하는 발언이나, 신틀과 삼던 신을 밀어놓고 담뱃대를 털며 모깃불에 다가왔으며 “괜히 시방 젊은 아이들은 철을 모르고 덤비지만 세상이 바루 돼두 때 있는 게지 어디 그렇게 됴메?”(전집 하, 29면) 하는 대꾸는 그 안에 민감한 당대의 저항을 슬쩍 터치하듯 담아낸 정치성과 함께 설화를 내세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은 서술의 표면에 의미를 모두 드러나지 않은 불투명한 맥락으로 풍부한 암시를 함유하는 효과를 확보한다.

‘홍길동과 소대성 같은 장수도 다 때를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시방두 충청도 계룡산에는 피난가는 사람이 많디는데……. 정도령이가 언제 나오나?”(29면)하는 유랑의 혹독한 현실을 언급하는 대목과 함께 등장하는 이

53) 최경희, 「출판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텍스트의 불확정성」,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4, 66-67면,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435면 재인용.

54) 『홍염』에 함께 수록된 「갈등」은 ‘어멈’을 들이면서 이들 하층민과 구별짓는 자신을 성찰하며 그들의 행색과 일치하지 않는 계급적 위선을 대상화하는 수작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최서해의 사회경제적 안정 속에 소설 지평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징후적 작품이나 이른 죽음으로 가능성만 남긴 채 정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점은 개작을 포함한 최서해의 글쓰기가 검열의 피해를 받았으나 검열을 우회하는 방식을 스스로 체득하며 소설사적 과정에 나름대로 부응해 나가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야기가 아기장수 설화이다. 이야기 와중에도 소 여물을 주라는 노인의 성화가 이어지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김서방은 드에 붙은 모기를 쫓아내는등, 일상의 소소한 소음들이 개입하며 텍스트를 오염시킨다. “아 그 ○○놈들이 장취 나는 곳마다 쇠말뚝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하는데……. 저 설봉산에서두 땅속에서 장취 나가라구 밤마다 쿵쿵 소리나더라오. 그런 거 ○○놈들이 말뚝을 박았다 빠니 피 묻었더라는데…….”(31면)하고 말을 건넨다. 쇠말뚝이 일제의 측량행위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매개물이고 설봉산이 도도한 민족정기를 은유하는 것이라면 「저류」의 대화 장면은 전형적인 ‘놀이(play)’로서의 대화의 장을 보여주며 정치성을 은폐하는 글쓰기 전략의 전형 하나를 보여주는 셈이다.⁵⁵⁾

「저류」는 아기장수 설화를 대화의 장 안에서 조금씩 쪼개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신성가치를 부여받은 영웅의 탄생이 좌절되는 서사구도를 비틀어 기쁨과 공상맞은 농촌의 팍팍한 현실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정치성을 ‘절합’(切合)하며 전망을 암시하는 제재가 된다. 그 정치성은 “허허, 동경 근처는 말이 아닐세! 이거 참 세상이 다시 개벽할라나? 이렇게 큰 지진은 말도 못 들었지.”(「13원」, 『혈흔』, 전집 상, 104면)하며 신문 을 보면서 특, 내던지는 K의 불온한 웅얼거림을 닮아 있다.⁵⁶⁾ 대화의 형국에서 일탈을 가장한 아기장수 설화의 문제적 측면은 ‘다시 개벽’을 꿈꾸는 K의 불온한 발언처럼, 이야기를 잘게 나누어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민중의 소망과 기대를 문맥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재(人材)

55) 린다 샤브리는 모든 문학 텍스트가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고전주의적 개념에서 무질서와 과잉의 징후들을 고발하는 임무와 증후적이고 우연한 생각, 스토리라인의 상실 같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담화 전략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 린다 샤브리, 이충민 역, 『담화의 놀이들』, 새물결, 2003, 10면.

56) 동경대지진(1923.9.1)에 대한 최서해의 발언이 새삼 주목되는 것은 소설 속 언급 자체가 검열의 한 항목으로 삼았을 만큼 통제된 내용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강덕상·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동북아재단, 2013; 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조선』, 선인, 2020 등 참조.

라는 인제는 다 죽이고……. 이놈의 나라이 안 망하구 어찌겠음메 글쎄!”(「저류」, 전집 하, 35면)라는 농민의 탄식이다, 아기장수가 원님을 죽이고 옥에 가둔 부모를 구해내는 이야기로 바꾸어놓으며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를 덧붙인다. “이때 보오마는 때는 꼭 있을게요”(「저류」, 36면)라며 말하는 김서방의 빛나는 눈과, 달을 쳐다보는 노인들의 눈길이 바로 그것이다. 부가된 장면은 아기장수 설화의 중의성을 미래의 어떤 현실을 환유하는 정치성으로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류」는 ‘옥문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는 장수의 전설이 가진 함의’와 이를 은폐하는 ‘능청스러운 대화’를 결합하여 농민들의 집단심성을 재현한 사례다. 앞서 거론했던 「노농대중과 문예운동」(『동아일보』, 1929.7.5-10)에서 ‘오늘날 조선의 무산 문예’의 소임을 강조하며 제시한 ‘생에 대한 욕망’, ‘신세계의 동경’, ‘반항 등의 심리’를 담아 ‘노농대중’에게 ‘빛나는 생과 새로운 세계와 즐기찬 힘’을 제시해야 한다는 언급을 자연스레 떠올려준다.

이처럼 최서해의 소설세계는 서발턴의 삶에 주목하며 ‘제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희생되는 서발턴의 대척점에다 근대문물과 국가장치에 대한 적대감을 소략하게 피력한 대신, ‘저류’처럼 정치성을 기입해 놓으며 담화의 풍경으로 은폐하는 글쓰기 양상은 확실히 새롭게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저항적 글쓰기와 적극적인 자기검열, 검열 우회를 위한 전략이 한데 어울려 재현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점은 “노한 바다 소리같이 우-하고 서북으로부터 쓸려내려올 때면 지진 난 것처럼 집까지 흔들흔들하다는 듯하였다.”(「향수」, 『혈흔』, 40면, 『전집 상』, 26면)라는 구절처럼, ‘동경대지진’의 맥락을 민중의 저항심리로 전유하는 방식, 검열 체제를 한껏 비틀며 검열에 적응하며 검열장을 벗어난 글쓰기의 효과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쓰기의 양상의 직접성은 시장통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시골노인을 닮아세우던 청년의 기개가 ‘삭제’된 이야기(「박노인 이야기」)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작품 생존술, 자기검열의 한 국면이기도 하다.

6. 마무리, 최서해 문학연구와 문화사적 지평

지금까지 이 글은 최서해의 소설을 중심으로 개작과 검열의 다양한 국면을 검토했다. 먼저 ‘개작의 윤곽과 지향’에서는 최서해라는 비문해자 출신 작가의 출현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하는 한편, 「토혈」의 개작에 주목하여 작품의 서술전략과 환상이라는 장치가 거둔 성취를 살폈다. 특히 그의 개작 과정은 서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인물 서술의 효율화, 환상의 구체화를 통해 『조선문단』이 지향하는 문학이념과 1920년대 근대소설의 신체성을 확보하며 ‘최서해식 신경향’을 창출해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두 권의 작품집 간행에 담긴 수록작 선별기준에 주목하여 평판작과 검열 통과를 위한 자기검열이 작동한 점을 살펴보았다. 두 권의 작품집 발간에 담긴 작품선별 기준의 함의를 추론하며 당대 문학장에서 작가의 자기정체성과 검열체제를 의식한 자기검열의 작동 흔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살려는 사람」과 「해돋이」가 동일작이라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검열 장치를 통과하기 위해 창작일자를 명기하여 작품명을 바꾸며 작품생존술의 한 사례로 지목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검열에 관한 최서해의 관념은 어떠했는지, 그의 소설 세계 전반에서 검열의 피해는 어떠했는지 짚어보는 한편, 그의 소설에서 뚜렷하게 결여된 서술과 근대장치에 대한 서술 부재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저류」를 사례로 삼아 자기검열과 검열 우회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이 글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최서해 소설의 정치성을 개작과 검열의 문제로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최서해라는 작가는 1920년대 문화정치와 검열이라는 장 안에서 표본적 사례로서 지니는 가치와 논의할 여지는 여전하다고 판단된다. 그의 사회적 활동과 소설세계는 1920년대 신문잡지의 미디어 영역에 놓여 있어서 민족진영과 친일신문, 기생잡지를 포함한 다양한 잡지와 국내외의 사회운동에 걸쳐 있어서,

작품활동을 비롯한 글쓰기 자체가 ‘신경향’의 문화사적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그는 1928년 카프 탈퇴 이후 문단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까지도 농촌과 야학 등 조선의 현실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⁵⁷⁾ 기생의 사회적 발언을 위한 잡지 『장한』 발간에 참여한 것 역시 첸더정치를 지원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볼 여지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1930년대 이후 다채롭고 풍요로운 성과를 제출해 나간 식민지 조선 문학의 경로에서 보면, 그의 문학은 서발탄에 대한 일관된 관심 속에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려는 도중에 생을 마감했던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문학은 비난에 가까운 세평이나 신경향으로 주목받았던 문단의 증언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방식을 벗어나 ‘단편적 징후들의 퍼즐맞추기를 통한 문화사적 복원’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최서해의 소설이 가진 하층민에 대한 일관된 시선이 가진 정치성 문제, 검열에 대응하는 ‘드러난 국면’과 ‘은폐된 국면’에 대한 해명, 드러난 정치성과 정치성 부재라는 일견 모순되기까지 한 국면 등이야말로 문화사적 맥락 안에서 좀더 세심하게 가려내야 할 과제인 셈이다.

57) 「모범 농촌 순례」, 『매일신보』, 1930.8.29-22.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최서해 『혈흔』, 글벗집, 1926.
최서해, 『홍염』, 삼천리사, 1931.
곽근 편, 『최서해전집 상·하』, 문학과지성사, 1987.
곽근 편, 『최서해전집(중)-호외시대』 중, 문학과지성사, 1994.
곽근 편, 『최서해작품, 자료집』, 국학자료원, 1997.
『최서해 단편선-탈출기』, 한국현대문학전집, 문학과지성사, 2004.
『조선문단』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경찰월보』 『언문신문불운기사
개요』

2. 2차 자료-단행본(번역본 포함)

-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동국대출판부, 2010.
문학사와비평학회,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2002.
문한별, 『검열, 실종된 작품과 문학사의 복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박상준, 『한국근대문학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출판, 2000.
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조선』, 선인, 2020.
손유경, 『고통과 동정-한국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08.
신지영, 『부/재의 시대-근대계몽기 및 식민지기 조선의 연설·좌담회』, 소명출판,
2012.
이민주, 『제국과 검열-일제하 언론통제와 제국적 검열통제』, 소명출판, 2020.
정근식 외 공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1,2)』, LG상남언론재단, 1998.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개정판,
정진석, 『언론총독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1890-1930)』, 문학과지성사, 2012.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한기형 이혜령 편, 『미친 자의 칼 아래서(1,2)』, 소명출판, 2017.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출판부, 2019.
한만수, 『허용된 불운』, 소명출판, 2015.
강덕상, 김동수 외 공역,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005.

- 강덕상·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동북아재단, 2013
- 로버트 단턴, 김지혜 역, 『로버트 단턴의 문화사 읽기』, 도서출판 길, 2008.
- 린다 사브리, 이충민 역, 『담화의 놀이들』, 새물결, 2003.
- 에마누엘 피에라, 권지현 역, 『검열에 관한 검은 책』, 알마, 2012.
-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대본』, 후마니타스, 2020.

3. 2차 자료(논문)

- 곽근, 「최서해 문학 연구」, 『국어국문학』 122, 국어국문학회, 1998, 349-374면.
- 곽근, 「최서해연구사의 고찰」, 『반교어문연구』 22집, 반교어문학회, 2007, 175-201면.
- 김경수, 「일제의 문학작품 검열의 실제-1920년대 압수소설 세편을 중심으로」, 『서강 인문논총』 3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5-39면.
- 김기현, 「『조선문단』 시절의 최서해」, 『우리문학연구』 2호, 1977, 30-55면.
- 김기현, 「최서해의 처녀작 단편 「토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1호, 국어국문학회, 1973, 51-60면.
-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에 관한 고찰」, 『한문국문학연구』 3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93-127면.
- 박용규, 「식민지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2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79-120면.
- 박현수, 「최서해 소설의 승인과정과 에크리튀르」,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 375-404면.
- 배정상, 「“호외시대” 재론-『매일신보』 신문연재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141-175면.
- 안용희, 「그늘에 피는 꽃, 최서해 소설의 아포리아」,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9-38면.
-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빈민 작가 탄생의 문화사적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221-264면.
- 윤대석, 「시대정신과 ‘풍속개량’의 대립과 타협-“호외시대”」, 『문학사와비평』 9, 2002, 155-176면.
-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119-141면.
- 이경돈, 「『조선문단』에 대한 재인식」, 『상허학보』 7집, 상허학회, 2001, 61-101면.
- 이경제, 「최서해와 만주-장소와 여성 표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62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7, 159-186면.
-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 『현대소설연구』 56, 현대소설학

- 회, 2014, 497-522면.
- 조은애, 「이광수의 언어공동체 인식과 『조선문단』의 에크리튀르」, 『비평문학』 34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307-331면.
- 채훈, 「최서해연구-소위 제2계열의 작품을 중심으로」(『논문집』 18권, 숙명여대, 1978, 303-323면,
- 최수일, 『『개벽』 소재 ‘기록서사’의 양식적 기원과 분화』, 『반교어문연구』 14집, 2002, 405-428면.
-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416-446면.
- 한수영, 「분노의 공과 사-최서해 소설의 ‘분노’의 기원과 공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6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363-398면.

<Abstract>

On Choi, Seo-hae[최서해(崔曙海)]'s Remake and Censorship

Yoo, Im-ha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remake and censorship based on the case of Choi, Seo-hae's novels. His novels is a case of securing the physicality of a 1920s novel, beyond the enlightening editorial writing. His novel, remake described well for the procedure move to modern novel by forming 'new trend' including 'reality of the nation-representation' from the history of experience. His Remake looked at the fact that it was inevitable to face Japanese censorship by acquiring political motivation based on class awakening while securing modern novel style. He also looked at the criteria for selecting works by paying attention to the two works he published during his lifetime. In the process, this article pointed out that the criteria for selecting works in the album is to consider self-identity as a writer, but also to be aware of censorship in publishing. In addition, the censor of Choi, Seo-hae was identified as an example of another magazine by changing the title of a work that was banned from being published due to censorship. In this article, it was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elf-censorship writing' as a 'work survival technique' to preserve politics in the censorship system, as well as the lack of a clear description of modern state devices in his novel.

Key words: Seo-hae Choi's novel, Remake, New Tendency, Political Motivation, Censorship, Self-censorship, Illusion, Modern

Nation Apparatus, Space, Cultural history

투 고 일: 2021년 5월 25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